

Gaon Soloists



장애·비장애 연주자가 함께하는 클래식 연주 단체 가온 솔로이스츠의 제5회 정기연주회 'Melody of Bliss: 기쁨의 노래'가 오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정기연주회에서 포즈를 취한 단원들.

(가온 솔로이스츠 제공)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연주할 수 있고, 들리지 않지만 춤을 출 수 있다.

제 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함께하는 기쁨의 무대가 펼쳐진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제 5회 정기 연주회 'Melody of Bliss: 기쁨의 노래'를 선보인다. 공연은 HS효성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가온 솔로이스츠는 장애·비장애 음악가가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음악감독인 비올리스트 김우영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단순한 장애·비장애 통합 연주 단체가 아닌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성취를 일궈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기쁨의 노래'라는 주제처럼 따사로운 봄과 함께하는 즐겁고 여유로운 무대로 채워질 예정이다. 장애 연주자 15명과 비장애 연주자 7명이 어우러져 코렐리, 베토벤,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의 익숙한 명곡들을 선사한다. 피아니스트이자 즉흥연주자 김기경의 편곡이 더해져 가온만의 경쾌하고 독특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코렐리의 '라 폴리아(La Folia)'와 바흐의 '샤콘(Chaconne)'으로 무대의 서막을 연다. 화려하고 격정적인 바이올린의 선율은 고통을 뚫고 솟아오르는 생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듯 하다. 시각장

가온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Melody of Bliss: 기쁨의 노래'

20일 장애인의 날 서울 예술의전당 장애·비장애 음악가 22명 어우러져 베토벤·차이코프스키 등 명곡 연주 HS효성 협찬... "긍정 에너지 선사"

애인 최초로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이 제1 바이올리니스트를 맡아 연주를 이끈다.

이어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지만 뛰어난 재능으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작곡가 파파디의 '시실리안느(Sicilienne)'가 펼쳐진다.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듬은 관객들에게 평화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드보르작의 '바가텔 작품번호 47번'과 아렌스키 '피아노 3중주 1번 Op.32', 그리그의 페르퀼트 모



연주자들이 지난해 '장애인의 날' 기념 연주회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

음곡 중 '아침의 기분(Morning Mood)'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와 함께하는 무대가 마련돼 색다른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아라는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Graceful Ghost Rag)',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설탕 요정의 춤(Dance of the Sugar-Plum Fairy)' 연주에 맞춰 우아하고 정교한 춤사위를 그려낸다.

가온과 고아라의 폴라보가 어떻게 합을 이루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객들에게는 즐거운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피날레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Ode to Joy)'. 이번 공연의 주제인 '기쁨의 노래'의 모티브가 된 이 곡은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에 베토벤이 곡을 붙인 것으로 평등과 자유, 연대의 정신을 담았다.

강자연 가온 솔로이스츠 대표는 "베토벤에게 청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두 그를 장애인이기보다 한 명의 음악가로 기억

한다"며 "우리 가온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환희의 송가'를 중심으로 공연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주를 본 관객들이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와 함께하는 것은 대단한 역경이나 고통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며" "관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웃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석 2만원, 예술의전당-인터파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우리의 몸에는...'전이 열린다. '코 없는 코끼리 no.2'와 함께 설치된 엄정순 작가의 드로잉 작품.



지난해 열린 아트광주24 행사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예술들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전 17일부터 ACC...아야 모모세 등

"코가 없으면 코끼리가 아닐까요?"

전시를 소개하는 박예원 학예사의 질문이다. 코가 없어도 코끼리일 것이다. 한쪽 팔이 없다고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 ACC)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17일부터 6월 29일까지)를 펼친다.

16일 전시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는 '배리어 프리'(무장애)로 구축한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라는 주제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인 김원영 작가의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전시에는 모두 5인(팀)이 참여했다. 엄정순, 해미 클레멘세비츠, 아야 모모세 등이다.

엄정순 작가의 설치 작품 '코 없는 코끼리'는 '이방인'의 이미지, 의미를 환기한다. '코가 없는 코끼리'는 마치 눈이 없는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같은 느낌을 준다.

박예원 학예사는 "작가는 언젠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봤던 코끼리를 모티브로 이번 작품을 제작했다"며 "서커스 등에 동원돼 학대를 당한 코끼리는 우리에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대해 묻는다"고 전했다.

해미 클레멘세비츠의 '웨도'는 원형의 스피커 4개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지름 약 45cm인 스피커에서는 '나', '고', '기', '고' 모음 소리가 흘러나오

는데 각각 소리가 다르다. 각기 다른 음정과 소리가 허공을 떠돌며 관객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소 철학적이고 난해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김원영을 비롯해 손나예, 여혜진, 이지양, 하은빈 작가의 '안녕히 영키기'는 지난 2월 워크숍을 전 시로 확장한 작품이다. 저마다 다른 상태의 장애인,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 움직이며 글도 쓰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토대로 구현했다.

김상욱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는 우리들의 일상에 깃든 경계와 구분을 허물고 예술로 하나가 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다양한 작품을 매개로 장애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제 아트페어 '아트광주25' 참여하세요

광주문화재단, 5월 16일까지 참여 갤러리 모집

호남 최대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5)'가 오는 10월 23일-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는 '광주 방문의 해'에 맞게 국내외 갤러리 100곳 이상 유치, 4000여점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아트광주25'에 참여할 갤러리를 오는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소지한 국내외 갤러리(화랑)로 미술 관련 전 분야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회화를 비롯해 조각,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서예 등이이며 갤러리당 부스는 2개 이상 신청 가

능하다. 희망 갤러리는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최종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가 부스비 납부, 도록자료 제출 등 추후 일정은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노희용 대표 이사는 "아트광주25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와 미술시장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견인하기 위해 재단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